

『武藝圖譜通志』의 「銳刀」 자세 분석과 「本國劍」과의 연관성 연구

최형국*(한국전통무예연구소장)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후기 병법서인 『武藝圖譜通志』 중 銳刀의 문장 구조 및 그에 따른 실제 자세와 본국검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것이다. 예도의 경우는 ‘初習’이라고 할 만큼 칼을 수련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단순한 동작인 주로 칼을 접었다가 공격하는 움직임이나 공격하였다가 겨누는 방식으로 지극히 단순한 자세로 구성되어 있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도의 전체 문장구조는 가장 먼저 해당 자세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바로 이어 이 방법으로 어느 부분 혹은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첫 자세에서 다음 자세로 움직일 때 어떤 손과 발을 사용하고 어떻게 움직여 어떤 보법으로 마지막 자세를 하는지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武藝諸譜翻譯續集』을 비롯한 여러가지 무예서에서 새롭게 무예 자세 명칭을 만들어야 할 경우 그 동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만든 자세의 명칭을 차용했다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국검에서 예도의 명칭과 일치되는 자세 중 해당 자세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예도에서 그 동작설명을 차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朝天勢, 左挾獸頭勢, 白猿出洞勢의 경우는 예도의 동작설명을 바탕으로 추가하면 공방기법에 따라 자연스러운 연결세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무예도보통지』, 예도, 본국검, 조선세법, 자세 연관성

* bluekb@hanmail.net

I. 머리말

『武藝圖譜通志』는 1790년(정조 14) 4월, 4권 4책에 한글로 된 언해본을 별도로 묶어 편찬한 兵書이다.¹⁾ 여기에는 보병들이 익혔던 18가지 단병무예와 기병들이 수련한 마상무예 6가지를 모두 담고 있는 종합군사무예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무예도보통지』는 우리의 전통시대 군사관련 서적인 병서류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무예·병기·복식·훈련방식 등 직접적인 내용을 비롯하여 언해본 및 판화의 특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²⁾ 또한 최근에는 이 병서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 전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이 나올 정도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³⁾

1) 『正祖實錄』卷30, 正祖 14年 4月 29日, 己卯條. ‘武藝圖譜通志 成’.

2)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 震檀學會에서 2001년 2월 7일에 주최한 <제28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 『武藝圖譜通志』의 종합적 검토>가 가장 대표적이다. 해당 심포지엄에서는 이 병서와 연관지어 당대의 군사정책, 병서로서의 의미, 무예 그 자체, 무예 그림 판화, 언해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통합하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이 연구들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진단학보』 91호에 모두 게재되었다. 그중 군사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盧永求, 「조선후기 단병 무예의 추이와 『武藝圖譜通志』의 성격」 『진단학보』 91호, 진단학회, 2001; 羅永一, 「『무예도보통지』의 무예」 『진단학보』 91호, 진단학회, 2001; 裴祐晟, 「정조시대의 군사정책과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배경」 『진단학보』 91호, 진단학회, 2001. 또한 이 병서에 수록된 스물네 가지의 무예인 ‘무예24기’의 각각의 무예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기병들이 익힌 마상무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군제사와 정치사적 관점을 혼합한 복합연구 등 후속연구가 이어지고 있다.(최복규, 『『武藝圖譜通志』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武藝論』,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준혁, 「正祖의 『武藝圖譜通志』 편찬 의도와 壯勇營 강화」 『중앙사론』 21, 중앙사학연구소, 2005; 최형국, 『朝鮮後期 騎兵의 馬上武藝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최형국, 「육군박물관 소장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특징과 그 활용」 『學藝志』 24호, 육군박물관, 2017.)

3) 광낙현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무예도보통지』와 연관된 학위논문으로 석사논문 29편, 박사논문 18편으로 총 47편이며 체육학, 역사학, 국어학, 의류

특히 지난 2016년에는 북한이 먼저 평양 인민대학습당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고,⁴⁾ 이 병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⁵⁾ 이후 지난 2017년 10월에는 북한이 단독으로 『무예도보통지』를 세계기록문화 유산으로 등재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⁶⁾

또한 이 병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전통군사 의례 및 무예관련 상설시범에서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무예24기의 동작들을 재현하거나 이를 응용한 시범이 자주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⁷⁾ 이러한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 첫째는 정조시대 御命으로 편찬된 무예서이기애 그 전통성의 확보면에서 기원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병서가 갖는 편집의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모두 24가지의 무예에 대한 자세한 한문 설명과 함께 그림이 더해져 관련 연구자들이나 수련자들이

학, 문헌정보학, 게임공학, 컴퓨터공학, 예술학, 문화콘텐츠 등 관련 학회지에 투고된 연구 결과도 총 72건으로 상당한 양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면관계상 세부의 관련 연구목록은 이하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곽낙현, 「『무예도보통지』 연구동향 분석」 『東洋古典研究』, 55집, 동양고전학회, 2014, pp.197~199.)

- 4)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18-20일 베트남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제7차 총회에서는 심사 성원들과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이 도서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언론보도로 발표하였다.
- 5) 북한의 『무예도보통지』 관련 연구는 문헌연구 10편, 영화 1편 등 총 11편으로 알려져 있다.(곽낙현, 「남북한 『무예도보통지』의 성과와 과제」 『정신문화연구』 3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pp.17-21.)
- 6) 당시 유네스코에 등재된 영문명은 ‘Comprehensive Illustrated Manual of Martial arts’ 로 등재되었으며, 관련한 내용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에 해당 목록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http://www.unesco.org/>)
- 7) 현재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관련 상설시범으로는 국방부 전통의장대의 전쟁기념관 광장 및 청와대 분수광장 상설시범을 비롯하여 수원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평루에서는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시범단의 상설시범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2020년에는 상설시범이 모두 취소된 상황이다.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언해본 즉 한글로 된 부분이 있기에 한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련생들도 다양한 복원연구가 가능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의 경우 시대적 차이로 인해 비록 언해본 즉, 한글이지만 한문과의 비교 설명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는 존재한다.

이러한 『무예도보통지』의 연구나 시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銳刀’이다.⁸⁾ 예도는 『무예도보통지』의 무예24기 중 중국의 茅元儀가 쓴 『武備志』에 ‘朝鮮勢法’이라고 했을 정도로 조선을 대표하는 검법으로 인식되었다.⁹⁾ 이런 이유로 『무예도보통지』를 전문으로 수련하는 무예단체 뿐만 아니라, 대한검도를 비롯한 여러 검 수련 관련 무예단체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해석방식에 따라 복원하여 수련하고 있다.¹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원문해석에 따른 동작의 복원 혹은 재연이 아닌 각 단체의 고유한 수련법을 대입하여 혼란의 형태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¹¹⁾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병서에 수록된 한문의 원문 해석과 언해본의 해석 그리고 동시대 만들어진 언해관련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銳刀’ 연구 및 실제 자세복원 및 의미 분석까지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8) 『무예도보통지』 예도(銳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종림, 「朝鮮勢法考」 『대한체육학회지』 38-1, 대한체육학회, 1999.; 전영식, 『조선 정조시대의 武藝圖譜通志에 관한 연구-銳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허인옥, 「예도의 유래에 대한 연구」 『건지인문학』 4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9) 『武藝圖譜通志』 卷2 銳刀, “朝鮮勢法 初習 眼法 擊法 洗法 刺法 擊法有五 豹頭擊 跨左擊 跨右擊 翼左擊 翼右擊 刺法有五 逆鱗刺 坦腹刺 雙明刺 左夾刺 右夾刺 格法有三 舉鼎格 旋風格 御車格 洗法有三 鳳頭洗 虎穴洗 騰蛟洗.”

10) 현재 각 무예단체마다 『무예도보통지』의 예도24세의 움직임은 크게 구분해 보자면, 한 동작/두 동작/세 동작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여 수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대한검도의 경우는 두 동작으로 몇 가지 세만 뽑아내어 승단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24반무예 경당의 경우는 세 동작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11) 이러한 예도의 복원에 대한 연구 중 김성인, 「무예도보통지의 예도조」(1-4) 『마르스』, 2000. 11-12/2011.5-6월호에 예도의 원문해석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무예가 보다 학술적 고증과정을 거쳐 대중에게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 銳刀의 한문 문장구조와 이해본의 해석에 따른 동작분석

예도는 모원의가 쓴 『武備志』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24세의 날개 검법(속칭 조선세법)과 조선군에서 이전부터 수련해온 연속적인 동작으로 구성된 譜 형태, 두 가지로 존재한다. 앞의 『무비지』의 내용은 24세의 ‘銳刀譜’로 정리되었고, 추가로 여기에 ‘예도총보’에 등장하는 독특한 4세를 ‘증’으로 추가한 것이다. 『무예도보통지』 편찬 이전부터 조선군이 수련한 연결자세 방식은 뒤에 ‘銳刀總譜’라는 이름으로 따로 정리하였다.¹²⁾

일반적으로 다른 무예의 설명에서는 앞의 譜를 그대로 연결한 것이 ‘總譜’의 방식으로 실려 있지만, 예도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검법처럼 ‘연결세’ 형태의 단독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앞의 예도(24세)의 경우는 ‘初躡’이라고 할 만큼 銳刀를 익힐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단순한 동작인 주로 칼을 접었다가 공격하는 움직임이나 공격하였다가 겨누는 방식으로 지극히 단순한 자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도의 전체 문장구조는 해당 자세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첫 자세 멈춤동작), 바로 이어 이 방법으로 어느 부분 혹은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핵심적인 공격 기법에 대한 언급-두번째 등장하는 ‘세’의 핵심기법). 그리고 실제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첫 자세에서 다음 자세로 움직일 때 어떤 손과 발을 사용하고 어떻게(두번째 자세) 움직여 어떤 보법으로 마지막 자세를 하는지 설명하

12) 허인욱, 「예도의 유래에 대한 연구」 『건지인문학』 4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看法’이라 하여, 그 하는 법을 보라는 식으로 마무리 하였다.

예를 들면 첫 자세에서 겨눔 변화 후 바로 공격 움직임이나, 상대의 공격을 1차로 막고 바로 공격하는 움직임이나, 1차 공격(상대방 방어) 후 바로 2차 겨눔이나 공격의 움직임 등이다. 그리고 ‘예도총보’ 부분에서 후술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날개의 공방기법이 ‘예도 24세(중 4세)’가 되고, 이 움직임을 활용한 연속적인 투로 방식의 움직임이 소위 ‘銳刀總譜’가 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예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조선세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勢法은 처음에 眼法¹³⁾, 擊法¹⁴⁾, 洗法¹⁵⁾, 刺法¹⁶⁾ 등을 연습한다.¹⁷⁾ 擊法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즉 豹頭擊¹⁸⁾, 跨左擊¹⁹⁾, 跨右擊²⁰⁾, 翼左擊²¹⁾, 翼右擊²²⁾ 등이다. 刺法에도 다섯 가지가 있는데, 逆鱗刺²³⁾, 坦腹

13) 안법(眼法)은 쉽게 말해 사물을 직시하는 법이다. 그 바탕에는 심법(心法)과 안법(眼法)이라고 하여 평온한 마음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수련을 근본에 두고 있다. 자기 몸의 한계를 끌어 올리는 것이 수련이지만, 그 기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련을 진행하면 그 순간 몸은 부서지고 만다. 건강하기 위하여 혹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수련하는 무예가 오히려 자신의 몸에 무리가 되어 중국에는 독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이 수련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다.

14) 물체를 치는 법.

15) 물체를 뽑아서(抽) 베는 법. ; 『劔法圖說』 下, 「論劔有八法與書法相通」.

16) 물체를 찌르는 법.

17) 조선세법(朝鮮勢法)을 처음 수련할 때 익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안법(眼法)을 시작으로 하여 기본적인 칼 쓰는 법인 치고(擊), 베고(洗), 찌르는(刺) 법을 익힌다고 하였다. 뒤에는 이러한 내용을 기본적인 틀로 만들어 예도의 24가지 동작으로 각 세명을 붙인 것이다.

18) 칼을 머리 위에서 치는 것.

19) 칼을 왼편에 걸쳐 치는 것.

20) 칼을 오른편에 걸쳐 치는 것.

21) 칼을 왼편 어깨(나래) 위에서 치는 것.

22) 칼을 오른편 어깨(나래) 위에서 치는 것.

23) 칼끝으로 목을 겨누어 찌르는 것 : 예도보의 역린세(逆鱗勢)에서, ‘法能直刺喉頸 : 능히 바로 목구멍과 목을 찌를 수 있다.(언해본:바로 목구멍과 목을 던려)’라고 하여 정확하게 목을 겨누 찌르는 것을 말한다. ‘역린(逆鱗)’은 거꾸로 뒤집어진

刺²⁴), 雙明刺²⁵), 左夾刺²⁶), 右夾刺²⁷) 등이다. 그리고 格法²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즉 舉鼎格²⁹), 旋風格³⁰), 御車格³¹)이 그것이다. 洗法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鳳頭洗³²), 虎穴洗³³), 騰蛟洗³⁴) 등이다.” 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도24세의 한문 원문과 언해본의 문장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⁵)

비늘이라는 뜻으로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비자(韓非子)』에는, ‘용이라는 동물은 유순하여 길들이면 올라 탈 수 있다. 그러나 그 목 아래 한 자 길이의 거꾸로 난 비늘이 있는 경우 만약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면 용을 길들인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죽는다. 군주에게도 역린 이 있다. 설득하려는 자는 군주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야 설득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韓非子』 「說難」, ‘夫龍之爲虫也, 柔可狎而騎也, 然其喉下有逆鱗徑尺, 若人有嬰之者則必殺人. 人主亦有逆鱗, 說者能無嬰人主之逆鱗則幾矣.’)

- 24) 칼끝으로 복부에 수평으로 겨누어 찌르는 것 : 예도보의 탄복세(坦腹勢)에서, ‘法能衝刺中殺 : 능히 (부딪히듯) 다 찢러 찌르고 가운데로 살(殺)할 수 있다.(언해본 : 다 달너 디르고 가운데로 살고)’ 라고 하여 신체의 중간인 배를 찌르는 것을 말한다. 언해의 ‘다달너 디르고’ 는 해당 탄복세의 설명을 참고한다.
- 25) 칼끝으로 두 눈을 겨누어 찌르는 것 : 보통 ‘쌍명(雙明)’ 은 ‘쌍으로 밝은 곳’ 즉, 두 눈을 의미한다. 당나라 시인인 맹교(孟郊)의 시 중 「성남연구(城南聯句)」에, ‘먼 산봉우리는 조금의 청색을 드러냈는데, 멀리 바라보자 두 눈이 더욱더 밝아졌지(遙峯出寸碧 遠目增雙明)’. 라는 구절이 있다. 혹은 쌍명은 심장을 찌르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예도에 쌍명자가 나오지 않으므로, 보편적인 찌름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26) 칼을 왼편(옆구리)에 끼워 찌르는 것.
- 27) 칼을 오른편(옆구리)에 끼워 찌르는 것.
- 28) 칼을 막는 자세(提) 혹은 방어법.
- 29) 술 드는 자세 혹은 술 드는 모양의 자세나 방어법.
- 30) 회전하는 자세 혹은 회전하는 모양의 자세나 방어법 ; 보통 ‘선풍(旋風)’ 은 회전하며 도는 바람인 회오리 바람을 이르는 말로, 포은집(圃隱集)에 보면, ‘회오리바람은 모래를 띠고 일어나고(旋風帶沙起) / 편우는 구름을 좇아 날아가 버리네(片雨逐雲飛)’ 라는 시가 있다.(圃隱先生文集 卷之一, 熊嶽古城, 瘦馬荒城路 低個行色微 旋風帶沙起 片雨逐雲飛 日落狐狸走 叢深鳥雀歸 哀哉北征卒 車下宿相依.)
- 31) 수레를 미는(모는) 자세 혹은 수레를 미는(모는) 모양의 자세나 방어법.
- 32) 봉황의 머리를 씻어내듯, 칼을 위에서 아래로 뽑아서 베는 것.
- 33) 호랑의 굴을 씻어내듯, 칼을 수평으로 뽑아서 베는 것.
- 34) 교룡 즉 상어가 솟구치는 것을 씻어내듯, 칼을 아래서 위로 뽑아서 베는 것.

○ 擧鼎勢란 곧 솔을 드는 격이다.³⁶⁾ 이 법은 능히 솔을 드는 형태로 위로
殺할 수 있다. 왼다리와 오른손으로 평대세로 앞을 향하여 배어치고 가운데
로 殺한다. 퇴보 군란세를 한다. 법을 보라. (擧鼎勢者 卽擧鼎格也 法能鼎格上
殺 左脚右手 平擡勢 向前掣擊中殺 退步 裙欄 看法)

○ 點劔勢란 곧 칼을 접하여 찌르는 것이다.³⁷⁾ 이 법은 능히 한편으로 번
득이고 빠르게 나아가 훑어 殺할 수 있다. 오른다리와 오른손으로 발초심사
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³⁸⁾로 어거격을 한다. 법을 보라. (點劔勢者 卽點劔刺也
法能偏閃秦進搶殺 右脚右手 撥艸尋蛇勢 向前掣步 御車格 看法)

○ 左翼勢는 곧 왼편 아래로 치는 것이다.³⁹⁾ 이 법은 능히 위로 돌우고⁴⁰⁾

35) 예도의 실제 해당 움직임에 대한 동작 설명은 각주로 추가한다.

36) 솔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처럼 칼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말한다. 거정세를 취한 후
왼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평대세로 앞을 향해 배어쳐 가운데를 살하고 퇴보로
군란(裙欄-칼을 겨누며 물러남)을 하는 것이다. 평대세는 솔들었던 모양으로 갈겨
치듯 사선으로 칼이 내려와 마지막에 평대(平擡)가 되는 움직임이다. 군란은 뒤로
자세를 낮추며 물러서며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곤방 자세에 주로
나온다.

37) 점검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오른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발초심사세를 체보로 움
직여 어거격으로 마무리 한다는 것을 말한다. 발초심사세는 점검세에서 칼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칼날을 번득이며 낮게 풀을 헤치며 베는 움직임이며(본국검의 세를
참고한다.), 마지막에 어거격(수레를 미는 듯한 형태)의 자세인 칼을 명치정도로 거
냥하고 왼쪽 옆구리에 끼며 마친다.

38) ‘掣步(체보)’는 언해본에 ‘버혀 걸어’라고 되어 있다. ‘버혀’는 ‘버히다’의
옛말로 (칼로 물건을) ‘베다’라는 의미이다. (『재물보(才物譜)』에, ‘해(害)’에
‘버히다’라는 설명이 있다.) 따라서 체보는 일반적으로 ‘(땅에 끌 듯이) 끄는 걸
음’으로 알려져 있지만, (헤치듯) 배어 걷는 보법에 해당한다. 이하의 ‘掣步(체보)’
는 모두 베듯이 걷는 걸음인 ‘체보’로 해석한다. 해당 움직임은 진보(進步)의 경우
는 일반적인 걸음인 좌우 발이 엇갈려 걷는 걸음이고, 체보는 좌우 발의 변화 없이
그대로 (땅을) 베듯이 밀고 나가는 걸음을 의미한다.

39) 좌익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오른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직부송서세로 체보로 움
직여 역린자를 한다. 직부송서세는 좌익세 상태에서 그대로 칼을 오른편 아래로
내렸다가 돌아 올리듯 걸쳐치다가 마지막 자세가 송서(送書)하듯 수평을 만드는 자

아래로 눌러 손아귀를 殺할 수 있다. 오른다리와 오른손으로 직부송서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역린자를 한다. 법을 보라. (左翼勢者 卽左翼擊也 法能上挑下壓直殺虎口 右脚右手 直符送書勢 向前掣步 逆鱗刺 看法)

○ 豹頭勢는 곧 표범의 머리로 치는 것이다.⁴¹⁾ 이 법은 능히 벼락 치듯이 위로 殺할 수 있다. 왼다리와 왼손으로 태산압정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위로 치켜올려) 돌우어⁴²⁾ 찌른다. 법을 보라. (豹頭勢者 卽豹頭擊也 法能霹擊上殺 左脚左手 泰山壓頂勢 向前掣步 挑刺 看法)

○ 坦腹勢는 곧 배를 헤치고 찌르는 것이다.⁴³⁾ 이 법은 능히 (부딪히듯) 다 쪼러 찌르고⁴⁴⁾ 가운데로 殺할 수 있는데, 무너지는 산처럼 나아간다. 오른다

세이다. 바로 이어 체보로 목을 향해 찌른다.

- 40) 언해본에는 ‘도도고(挑: 돌출: 도-돌우다/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도도고’는 ‘도도다’라는 동사로 ‘돌우다’의 옛말이다. 돌우다는 ‘위로 끌어 올려 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다.’는 의미이기에 칼이 아래서 위로 움직이는 모양새임을 알 수 있다.
- 41) 표두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왼다리와 왼손을 사용하여 태산압정세로 체보로 움직여 ‘도자(挑刺:아래서 위쪽으로 찌름)’를 한다. 태산압정세는 표두세 상태에서 그대로 벼락치듯 빠르게 내려 앉으며 칼을 누르듯 배는 움직임을 말하여, 도자는 살짝 일어서며 사선으로 아래서 위쪽으로 찌르는 자세를 말한다.
- 42) 언해본에는 ‘도도아(挑) 디르느(刺:자-『재물보(才物譜)』에, ‘자(刺)’는 ‘以刀頭插物也’라고 하여 ‘칼날머리로 사물을 꽂는 것’이라고 하였고, ‘충(衝)’에 대한 설명이 ‘찌르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물에 겨누듯이 밀고 들어가 칼날을 꽂는 것이 ‘자(刺)’이고, ‘충(衝)’은 부딪쳐 때리듯 찌르는 것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자(挑刺)’는 아래서 위로 돌우어 찌르는 것이다. ‘도도아(挑)’는 점검세(돌우고)의 각주를 참고한다. 그리고 아래의 ‘충자(衝刺)’ 설명에서 다양한 찌르기 방법의 차이를 함께 설명한다.
- 43) 탄복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오른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창룡출수세로 진보로 움직여 허리를 친다. 창룡출수세는 탄복세의 상태에서 칼을 앞으로 찌르듯 내었다가 왼편으로 크게 넘기듯 몸 뒤로 보내는 움직임을 말한다. 바로 이어 진보로 허리를 친다.
- 44) ‘충자(衝刺)’는 언해본에 ‘다 덜너(衝) 디르고(刺)’라고 하였는데, 두꺼운 표면을 부딪쳐 때리듯 찌르고 찌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재물보(才物譜)』에, ‘충(衝)’에 대한 설명으로 ‘찌르다’라고 하여 찌르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리와 오른손으로 창룡출수세로 앞을 향하여 진보로 허리를 친다. 법을 보라.
(坦腹勢者 卽坦腹刺也 法能衝刺中殺進如崩山 右腳右手 蒼龍出水勢 向前進步
腰擊 看法)

○ 과우세(跨右勢)는 곧 오른편을 걸쳐 치는 것이다.⁴⁵⁾ 이 법은 능히 돋우어 갈겨 아래로 殺할 수 있다. 왼다리와 오른손으로 작의세로 앞을 향하여 진보로 가로로 친다. 법을 보라. (跨右勢者 卽跨右擊也 法能撩剪下殺 左腳右手 綽衣勢 向前進步 橫擊 看法)

○撩掠勢는 곧 돋우어 훑는 격이다.⁴⁶⁾ 이 법은 능히 막고 받아 아래로 殺할 수 있는데, 왼편을 가리고 오른편을 호위할 수 있다. 왼다리와 왼손으로 장교분수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비비어⁴⁷⁾ 친다. 법을 보라.(撩掠勢者 卽撩

(『才物譜』卷6,「物譜一」物用.) 보통 ‘자(刺)’는 그냥 바르게 겨누듯 찌르는 것이고, ‘충자(衝刺)’는 표면이 두꺼울 때 뚫고 들어가야 하기에 찌르고 찌르는 것이며, ‘찬자(鑽刺)’는 송곳을 비벼 돌리듯 비틀며(반시계방향) 찌르는 것이며, ‘교자(絞刺)’는 좌우의 손을 꼬아(시계방향으로 돌림:우협세) 찌르는 움직임의 의미한다. 그리고 찬격(鑽擊)은 송곳을 돌리듯 비틀어(반시계방향으로 뒤집어) 치는 것을 의미한다.

45) 과우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왼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작의세로 진보로 움직여 가로로 친다. 작의세는 과우세 상태에서 돌아 올리듯 앞으로 걸쳐 올렸다가 왼편 몸 뒤로 칼을 넘기는 움직임을 말한다. 바로 이어 진보로 가로로(횡으로) 친다.

46) 요략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왼다리와 왼손을 사용하여 장교분수세를 체보로 움직여 비비어- ‘(손목을 돌려 칼날을 뒤집듯이) 돌려서 치는 것’ 친다. 장교분수세는 요략세 상태에서 훑어 올리듯 아래서 위로 걸쳐치는 움직임을 말한다. 바로이어 칼날을 뒤집듯 돌려(비비어: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사선으로 갈겨친다.

47) 찬격(鑽擊)의 명칭에서 ‘찬(鑽)’은 언해본에 ‘비비어’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만영(李晩永)이 1798년(정조 22)에 엮은 유서류(類書類) 책인 『재물보(才物譜)』에, ‘찬(鑽)-찬광(穿光)’이라 하였고, 그 뒤에 ‘찬궁(鑽弓)’의 설명에 ‘비비 활’이라고 하였다.(『才物譜』卷6,「物譜一」財貨.) ‘찬궁(鑽弓)’은 ‘비비 활’ 혹은 ‘활비비’라고도 하는데, 활의 시위부분에 송곳의 죽대에 감고, 한 손은 죽대의 위를 나무나 돌 등 딱딱하고 되도록 마찰이 적은 재료로 누르개를 만들어 썩히 쥐고, 다른 손으로 바이올린이나 톱을 켜듯이 활을 밀고 당길 때 사용하

掠格也 法能遮駕下殺蔽左護右 左脚左手 長蛟分水勢 向前掣步 鑽擊 看法)

○ 御車勢는 곧 수레를 어거하는 격이다.⁴⁸⁾ 이 법은 능히 매어 어거하는 형태로 가운데로 살殺할 수 있는데, 두 손을 꺾어 殺할 수도 있다. 윈다리와 오른손으로 충봉세로 앞을 향하여 퇴보⁴⁹⁾로 봉두세를 한다. 법을 보라.(御車勢者 卽御車格也 法能駕御中殺削殺雙手 左脚右手 衝鋒勢 向前退步 鳳頭洗 看法)

○ 展旗勢는 곧 깃발을 퍼듯 치는 것이다.⁵⁰⁾ 이 법은 능히 갈겨 갈아⁵¹⁾ 위로 殺할 수 있다. 윈다리와 왼손으로 탁탐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칼을 點⁵²⁾한다. 법을 보라.(展旗勢者 卽展旗擊也 法能剪磨上殺 左脚左手 托塔勢

는 도구다. 따라서 ‘찬격’ 설명인 언해본의 ‘비비어 티닉’ 는 ‘칼날을 송곳처럼 돌려 치는 것’ 에 해당한다.(예도에서 사용한 칼이 기본적으로 양날 검방식이기에 이러한 설명이 더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양날 검 중 왼쪽 칼날을 사용 후 다시 왼쪽 칼날을 사용하라고 할 경우에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때 자연스럽게 칼을 권 손이 송곳을 돌리 듯 움직인다. 쉽게 이야기하면 칼날을 뒤집듯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는 움직임이다.) 『훈몽자회(訓蒙字會)』와 조선 후기 사역원에서 신이행 등이 만든 중국어 어휘사전인 『역어유해(譯語類解)』에는 ‘비비’ 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순조대(1820년대) 유희(柳僖)가 여러 가지의 물명을 모아 한글 또는 한문으로 풀이하여 만든 일종의 어휘사전인 『물명고(物名攷)』에는 ‘부비’ 라는 연장이 등장한다. 이들 설명에서 ‘찬(鑽)’ 이라는 한문이 반드시 등장한다.

48) 어거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윈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충봉세로 퇴보로 봉두세를 한다. 충봉세는 어거세 상태에서 앞에서 들어오는 상대방의 무기를 막아 내듯 칼을 앞으로 뺀 자세를 말한다. 바로 이어 뒤로 물러서며 뽑아서 내려낸다.

49) 뒤로 물러 걸어.

50) 전기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윈다리와 왼손을 사용하여 탁탐세로 체보로 칼을 점(點)한다. 탁탐세는 전기세 상태에서 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두르는(磨) 자세를 말한다. 바로 이어 오른쪽에 있는 칼끝을 중앙으로 내리며(點) 체보로 상대방의 무기를 제압한다.

51) 군사신호체계에서 깃발의 움직임 중 ‘마(磨)’ 는 깃발을 왼쪽으로 휘두르는 것, ‘휘(麾)’ 는 깃발을 오른쪽으로 휘두르는 것이다.(『兵學指南演義』 卷1, 「明旗應」, ‘用旗之法 直曰立 伏曰偃 指曰點 搖曰磨.’ ; 「明認旗號」, ‘舊設左揮爲磨 右揮爲麾’.) 따라서 전기세라는 이름에 등장하는 ‘깃발’ 처럼 ‘마(磨)’ 한다는 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칼을 휘둘러 치는 것을 의미한다.

向前掣步 點劍 看法)

○ 看守勢는 곧 보고 지켜 치는 것이다.⁵³⁾ 이 법은 능히 보고 지킬 수 있으니, 모든 병기가 쳐오고 찢러오거든 지켜 평정하고, 모든 병기가 나아가기 어렵거든 기틀을 보아 형세에 따라 굴려서 殺할 수 있다. 왼다리와 오른손으로 호준세로 앞을 향하여 진보로 허리를 친다. 법을 보라. (看守勢者 卽看守擊也 法能看守諸器攻刺守定 諸器難進相機隨勢滾殺 左脚右手 虎蹲勢 向前進步 腰擊 看法)

○ 銀蟒勢는 곧 은구렁이 격이다.⁵⁴⁾ 이 법은 능히 사방으로 돌아보고 몸을 두르고, 또 능히 사면으로 노략하여 殺할 수 있다. 앞을 향하면 왼손과 왼다리, 뒤를 향하면 오른손 오른다리, 움직이면 좌우로 선풍⁵⁵⁾하여 번개치듯 殺하는 것이다. 법을 보라. (銀蟒勢者 卽銀蟒格也 法能四顧周身 又能掠殺四面 向前則左手左脚 向後則右手右脚 動則左右旋風掣電殺 看法)

○ 鑽擊勢는 곧 비비어 치는⁵⁶⁾ 것이다.⁵⁷⁾ 이 법은 능히 비비는 격으로 훑

52) ‘점(點)’ 한다는 것을 칼을 찢러(제압하듯) 들어가듯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신호체계에서 깃발을 ‘점(點)’ 한다는 의미와 유사하다. 이러한 군사신호체계에서 깃발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은 최형국, 「朝鮮後期 軍事信號體系 研究」 『學藝志』 15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8.이 자세하다.

53) 간수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왼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호준세를 진보로 허리를 친다. 호준세는 간수세 상태에서 앞으로 칼을 겨냥하며 자세를 더 깊숙이 낮춰 앉는 움직임을 말한다. 바로 이어 진보로 허리를 친다.

54) 은망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적이) 앞쪽에 있으면 왼손과 왼다리, 뒤쪽에 있으면 오른손과 오른다리, 적이 움직이면 좌우로 돌며 벤다.

55) 몸을 회전시키며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90-180도) 선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도보 앞부분의 ‘선풍격(旋風格)’의 각주를 참고한다. 사면으로 움직이므로 앞쪽은 ‘向前則左手左脚(앞)’ 뒤쪽은 ‘向後則右手右脚(180도)’ 좌우는 ‘動則左右旋風(90도)’ 이므로 앞/뒤/좌/우 4개의 자세가 있다.(‘動則左右旋風’을 좌우 연결하여 한가지 자세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경우 앞/뒤/좌우 3개의 자세.)

56) ‘찬격’ 설명인 언해본의 ‘비비어 티는’은 ‘(손목을 돌려 칼날을 뒤집듯이) 돌

어 殺할 수 있는데, 거위 모양과 오리걸음으로 달리며 내딛을 수 있다. 왼다리와 왼손으로 백원출동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허리를 친다. 법을 보라.(鑽擊勢者 卽鑽擊也法 能鑽格槍殺鵝形鴨步奔衝 左脚左手 白猿出洞勢 向前掣步腰擊 看法)

○ 腰擊勢는 곧 허리를 치는 것이다.⁵⁸⁾ 이 법은 능히 비스듬히⁵⁹⁾ 찢러⁶⁰⁾ 가운데로 殺할 수 있다. 몸, 걸음, 손, 칼의 빠르기가 급한 우레같으니, 이 일격이 검법 중의 으뜸으로 치는 것이다. 오른다리와 오른손으로 참사세로 앞을 향하여 진보로 逆鱗⁶¹⁾을 한다. 법을 보라.(腰擊勢者 卽腰擊也 法能橫衝中殺身步手劒疾若迅雷 此一擊者劒中之首擊也 右脚右手 斬蛇勢 向前進步 逆鱗 看法)

○ 展翅勢는 곧 나래를 펼쳐 치는 것이다.⁶²⁾ 이 법은 능히 꼬는⁶³⁾ 방식으

려 치는 것'에 해당한다. 자세한 설명은 요약세에 '비비어 치다'라는 것을 참고한다.

- 57) 찬격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왼다리와 왼손을 사용하여 백원출동세로 체보로 허리를 친다. 백원출동세는 찬격세 상태에서 오른발을 가볍게 들며 칼을 왼편 몸 뒷쪽 아래로 내렸다가 돌려(칼날을 뒤집어) 배뒀 걸쳐 올려 왼쪽 어깨위로 들어 올리는 움직임 말한다. 바로 이어 체보로 허리를 친다.
- 58) 요격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오른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참사세로 진보로 역린(목을 겨눔)을 한다. 참사세는 요격세 상태에서 칼을 왼편에서 오른편 사선으로 비스듬히 찢르듯 몸 정면으로 가져오는 움직임 말한다. 바로 이어 진보로 나아가며 상대방의 목을 찢르듯 겨냥한다.
- 59) '횡(橫)'은 언해본에 '빗기'라고 되어 있는데, '빗기'는 '비스듬히' 혹은 '가로로'의 옛말이다.
- 60) '충(衝)'은 탄복세의 설명을 참조한다. 『재물보(才物譜)』에, '충(衝)'에 대한 설명으로 '찌르다'라고 하여 찢르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才物譜』卷6, 「物譜一」物用.)
- 61) 역린(逆鱗)은 목을 찢르듯이 겨누는 의미이다. 참사세로 움직이면 마지막에 역린의 형태로 칼을 겨누게 된다. 역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의 조선세법 중 역린자를 참고한다.
- 62) 전시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오른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편섬세로 체보로 거정격을 한다. 편섬세는 전시세 상태에서 칼끝을 시계방향으로 감듯 꼬듯이 휘둘러 칼

로 위로 殺할 수 있으며, (위로 치켜올려) 돋우며⁶⁴) 훑어 아래로 殺할 수도 있다. 오른다리와 오른손으로 편섬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거정격을 한다. 법을 보라.(展翅勢者 卽展翅擊也法 能絞格上殺撩掠下殺 右脚右手 偏閃勢 向前擊步 舉鼎格 看法)

○ 右翼勢는 곧 오른편 나래로 치는 것이다.⁶⁵) 이 법은 능히 갈겨 양쪽 날개를 殺할 수 있다. 오른다리와 오른손으로 안자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허리를 친다. 법을 보라.(右翼勢者 卽右翼擊也 法能剪殺兩翼 左脚右手 雁字勢 向前擊步 腰擊 看法)

○ 揭擊勢는 곧 들어 치는 것이다.⁶⁶) 이 법은 능히 엮는 방식으로 위로 殺할 수 있는데, 걸음걸음을 겹치듯 건는다. 왼다리와 왼손으로 호좌세로 앞을 향하여 퇴보로 衝洗⁶⁷)를 한다. 법을 보라.(揭擊勢者 卽揭擊也法 能剪格上殺步

날을 번득이는 움직임을 말한다. 바로 이어 거정세처럼 오른편 어깨 위에 칼을 올려 놓는다.(‘교격<絞格>’은 좌우의 손을 꼬듯이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움직임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우협세에서 ‘교자<絞刺>’는 좌우의 손을 꼬듯이 시계방향으로 돌려 찌르는 움직임이다.)

- 63) 언해본에는 ‘쇼는’으로 되어 있으며, 한자로는 ‘교:絞-(새끼줄을) 꼬다, 묶다’이므로 ‘쇼는’으로 해석한다. 좌우의 손목을 꼬아 칼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움직임에 해당한다.
- 64) 언해본에는 ‘도도며’라고 되어 있다. 위의 좌익세의 ‘도도고’를 참고한다.
- 65) 우익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오른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안자세로 체보로 허리를 친다. 안자세는 우익세 상태에서 칼을 앞으로 어깨까지 내려쳐 ‘기러기:안(雁)자’ 즉, ‘일(-)’자 모양으로 칼을 쭈욱 뺀어 찌르는 형태의 움직임을 말한다. 바로 이어 체보로 허리를 친다.
- 66) 계격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왼다리와 왼손을 사용하여 호좌세로 퇴보로 층세(찌르듯 뽑아서 내려벤다)한다. 호좌세는 계격세 상태에서 칼을 앞으로 들이치듯 깊게 얹으며 누르는 움직임을 말한다. 바로 이어 뒤로 물러서며 앞으로 찌르듯이 뽑아서 내려 벤다.
- 67) ‘층세(衝洗)’에서 ‘층(衝)’은 언해본에 ‘딜너’라고 되어 있다. 『재물보(才物譜)』에, ‘층(衝)’에 대한 설명으로 ‘찌르다’라고 하여 찌르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才物譜』卷6, 「物譜一」物用.) 따라서 ‘층세(衝洗)’는 찌르듯 크게

步套進 左脚左手 虎坐勢 向前退步 衝洗 看法)

○ 左夾勢는 곧 왼편으로 꺾어 찌르는 것이다.⁶⁸⁾ 이 법은 능히 다 찢러 찌르고⁶⁹⁾ 가운데로 살갓할 수 있다. 오른다리와 오른손으로 수두세로 앞을 향하여 진보로 허리를 친다. 법을 보라. (左夾勢者 卽左夾刺也 法能衝刺中殺 右腳右手 獸頭勢 向前進步 腰擊 看法)

○ 跨左勢는 왼편으로 걸쳐 치는 것이다.⁷⁰⁾ 이 법은 능히 쓸어 노략하여 아래로 殺할 수 있다. 오른다리와 오른손으로 제수세로 앞을 향하여 진보로 쌍으로 갈긴다. 법을 보라. (跨左勢者 卽跨左擊也法 能掃掠下殺 右腳右手 提水勢 向前進步 雙剪 看法)

○ 掀擊勢는 곧 흔들어 치는 것이다.⁷¹⁾ 이 법은 능히 흔들고 돌우어 위로 殺하거나 훑어 걸어 비비어⁷²⁾ 殺할 수 있다. 왼다리와 오른손으로 조천세로

베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刺)’ 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탄복세의 디르느(刺:자)의 각주를 참고한다.

- 68) 좌협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오른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수두세로 진보로 허리를 친다. 수두세는 좌협세 상태에서 칼끝을 앞으로 하여 찌르듯 내렸다가 왼편 어깨 쪽에 기대는 움직임을 말한다. 바로 이어 진보로 허리를 친다.
- 69) 탄복세에도 동일한 ‘충자중살(衝刺中殺)’ 이 있다. 언해본에는 ‘다딜너 디르고’ 로 되어 있어, ‘충(衝)’ 과 ‘자(刺)’ 가 합쳐진 형태로 『재물보(才物譜)』의 언해와 비교하여, ‘(모두) 다 (부딪히듯) 찢러 찌르고’ 로 해석한다.
- 70) 과좌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오른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제수세로 진보로 쌍으로 (두 번을) 갈긴다. 제수세는 과좌세의 상태에서 칼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한번 감았다가 다시 바로 이어 아래서 위로 걸쳐 올리는(요략) 움직임을 말한다. 바로 이어 진보로 좌우 두 번을 연속으로 갈겨 친다.
- 71) 흔격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왼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조천세로 퇴보로 탄복자(배를 겨누어 찌름)한다. 조천세는 흔격세 상태에서 칼을 앞을 향해 걸쳐베어 올리듯 들어 올려 칼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말한다. 바로 이어 뒤로 물러서며 배를 찌른다.
- 72) ‘찬살(鑽殺)’ 설명인 언해본의 ‘비비여 살하야’ 는 ‘(송곳을) 돌리듯 칼날을 반시계방향으로 뒤집듯이 돌려 살하는 것’ 에 해당한다. 자세한 설명은 요략세에

앞을 향하여 퇴보로 탄복자를 한다. 법을 보라. (掀擊勢者 卽掀擊也 法能掀挑上殺搶步鑽殺 左脚右手 朝天勢 向前退步 坦腹刺 看法)

○ 逆鱗勢는 곧 비늘을 거슬러 찌르는 것이다.⁷³⁾ 이 법은 능히 바로 목구멍과 목을 찌를 수 있다. 오른다리와 오른손으로 탐해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좌익격을 한다. 법을 보라. (逆鱗勢者 卽逆鱗刺也 法能直刺喉頸 右脚右手 探海勢 向前掣步 左翼擊 看法)

○ 斂翅勢는 곧 나래를 거두고 치는 것이다.⁷⁴⁾ 이 법은 능히 거짓으로 패한 척 피여 속일 수 있다. 좌우의 손과 다리⁷⁵⁾로 발사세로 거꾸로 물러났다가 진보로 허리를 친다. 법을 보라. (斂翅勢者 卽斂翅擊也 法能佯北誘賺 左右手脚 拔蛇勢 倒退進步 腰擊 看法)

○ 右夾勢란 오른쪽으로 꺾어서 찌르는 것이다.⁷⁶⁾ 이 법은 능히 꼬아⁷⁷⁾ 찢러

‘비비어 치다’ 라는 것을 참고한다.

73) 역린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오른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탐해세로 체보로 좌익을 친다. 언해본에는 마지막 좌익격의 ‘격(擊)’ 자를 ‘세(勢)’ 로 쓰고 있다. 오기로 보인다.(『무비지』에도 ‘격<擊>’ 으로 표기) 탐해세는 역린세 상태에서 칼을 목을 향하여 찌르듯이 빠른 움직임을 말한다. 바로 이어 체보로 좌익격(왼쪽 나래를 친다)을 한다.

74) 염시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좌우의 손과 다리를 사용하여 발사세로 물러났다가 진보로 허리를 친다. 발사세는 염시세 상태에서 거짓으로 속이듯 앞발을 뒤로 빼었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는 움직임을 말한다. 바로 이어 진보로 허리를 친다.(좌우 한쌍의 동작이 있음.)

75) 여기서 ‘좌우수각(左右手脚)’ 은 칼이 왼편에 있을 때는 왼손과 왼다리를 사용하고, 칼이 오른편에 있을 때에는 오른손과 오른다리를 사용하여 좌우 대칭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좌우 손 위치에 따라 동작이 좌우 한쌍이 있는 것이다.

76) 우협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왼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분층세로 입보로 거정격을 한다. 분층세는 우협세 상태에서 앞을 향해 좌우의 손을 꼬듯이(시계방향으로 돌림:<絞刺> 찌르는 움직임을 말한다. 바로 이어 서서 견뎌하여 왼 어깨에 칼을 들어 올린다.(거정격)

서 가운데로 殺할 수 있다. 왼다리와 오른손으로 분층세로 앞을 향하여 입보⁷⁸⁾로 거정격을 한다. 법을 보라. (右夾勢者 卽右夾刺也 法能絞刺中殺 左腳右手 奔衝勢 向前立步 舉鼎格 看法)

○ 鳳頭勢는 봉의 머리로 씻는 것이다.⁷⁹⁾ 이 법은 능히 씻어 찢러 갈겨 殺할 수 있다. 오른다리와 오른손으로 백사룡풍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들어친다. 법을 보라. (鳳頭勢者 卽鳳頭洗也 法能洗刺剪殺 右腳右手 白蛇弄風勢 向前掣步 揭擊 看法)

○ 橫衝勢는 곧 가로로 찢러 치는 것이다.⁸⁰⁾ 이 법은 능히 빨리 달아나⁸¹⁾ 숨어 번득이고 굴러 殺할 수 있는데, 나아가거나 물러날 수 있다. 두 손 두 발⁸²⁾로 형세를 따라 찢러 나아가 체보⁸³⁾로 (위로 치켜올려) 돋우어⁸⁴⁾ 요약한

77) 언해본에는 ‘쇠아’로 되어 있으며, 한자로는 ‘교:絞-(새끼줄을) 꼬다, 묶다’이므로 ‘꼬아’로 해석한다. 좌우의 손목을 꼬아 시계방향으로 비트는 움직임에 해당한다.

78) ‘입보(立步)’는 자세를 낮추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서서 걷는 자세를 의미한다. (『赴燕日記』「主見諸事」, ‘喪主在輦前 排立步行.’)

79) 봉두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오른다리와 오른손을 사용하여 백사룡풍세로 체보로 들어친다. 백사룡풍세는 봉두세 상태에서 칼끝을 빠르게 뽑듯이 올렸다가 찢르듯 갈겨치는 움직임을 말한다. 바로 이어 체보로 들어친다.

80) 횡충세의 자세를 취했다가 두손두발을 사용하여 기세를 따라 충진체보로 요약한다. 횡충세 상태에서 칼을 앞으로 찢르듯 내렸다가 앞을 향해 아래서 위로 쓸어 올려 벤다. 또한 몸을 돌려 칼을 뒤로 찢르듯 내렸다가 뒤를 향해 아래서 위로 쓸어 올려 벤다.(형세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갈 때와 뒤로 물러날 때, 한쌍의 동작이 있음.)

81) 언해본에는 ‘달아’로 되어 있으며, 한자로는 ‘분:奔-달아나다, 패주하다’이므로 ‘달아나’로 해석한다.

82) ‘양수양각(兩手兩腳)’은 두손 두발로 움직인다는 것으로, 나아가갈 때와 물러갈 때 양손과 양발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갈 때와 물러갈 때에 따라 동작 한쌍이 있는 것이다.

83) ‘충진체보(衝進掣步)’는 『재물보(才物譜)』의 언해에 따라 ‘찢러들어 가며 체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84) 언해본에는 ‘도도아’라고 되어 있다. 좌익세의 ‘도도고(돋우어)’를 참고한다.

다. 법을 보라. (橫衝勢者 卽橫衝擊也 法能疾奔頽閃滾殺進退 兩手兩脚隨勢 衝進掣步 撩掠 看法)

이상과 같이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예도’의 스물네가지 ‘勢’에 대한 원문해석과 동작설명을 하였다. 이러한 예도의 각 자세를 분석해보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기본적인 움직임이 실제 교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칼의 움직임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상대방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을 경우, 첫 자세에서 겨눔 변화 후 바로 공격 움직임을 설명하거나, 상대가 먼저 공격을 해올 경우 상대의 공격을 1차로 막고 바로 반격하는 움직임이나, 상대방을 향해 1차 공격을 진행하여 빈틈이 보일 경우 바로 2차 겨눔이나 공격의 움직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예도24세의 기본 움직임은 엄밀히 보자면, 첫 자세에서 두 동작으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공방법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예도보의 시작부분에서 ‘初習’ 즉, 가장 기초적인 훈련법 혹은 초심자가 훈련해야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Ⅲ. 銳刀와 本國劍의 勢 명칭 및 자세 연관성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예도’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검법은 ‘本國劍’이다. 특히 본국검에 대한 설명 중 신라의 화랑인 ‘黃倡’의 고사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검법의 역사적 연원을 삼국시대까지 확장시켰기에 역사적 전통성 확보 차원에서 대중들에게도 자주 언급되는 검법이다.⁸⁵⁾ 다음의 사료는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신라의 화랑과 연관된 내용이다.

85) 본국검의 유래나 연원에 대한 연구는 허인옥, 「본국검의 기원에 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8-1, 한국체육사학회, 2003.에 자세하다.

『輿地勝覽』에 이르기를, “화랑 黃倡은 新羅 사람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일곱 살에 百濟에 들어가 거리에서 칼춤을 추었는데 구경꾼이 담장을 이루었다. 百濟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불러다가 마루에 올라 칼춤을 추도록 명하였다. 黃倡郎은 이로 인하여 왕을 절렀다. 그리하여 백제 사람들이 그를 죽였고, 신라인들은 이를 애달프게 여겨 그의 얼굴을 본떠서 가면을 만들어 칼춤을 추었다는데,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라 하였다.⁸⁶⁾

위의 사료를 보면, 본국검의 기원을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길게는 천년의 시간이라는 공간이 있기에 본국검의 기원을 신라에서 찾는 것은 무리수가 많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의 칼쓰는 기술(劍法)이 부족하여 단병접전에서 피해를 봤을 때, 국왕이 조선군에 검법이 없음을 한탄하는 대목이 자주 발견된다.⁸⁷⁾ 심지어 『무예도보통지』의 서문에서도 임란이전에는 오직 ‘弓矢一技’ 라고 말할 정도로 단병무예인 창검보다는 원사무기인 활쏘기가 무예의 핵심이었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등장할 정도였다.⁸⁸⁾

실제로 조선시대 사료에 본국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顯宗代 즉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후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承政院日記』를 살펴보면, 觀武才의 初試의 規矩를 정리할 때, 처음으로 본국검에 대한 공식적인 점수 인정 방식이 등장한다. 특히 이날의 규구 정리 시 본국검을 비롯하여 조총,

86) 『武藝圖譜通志』 卷3 本國劍, “輿地勝覽曰 黃倡郎新羅人也 諺傳年七歲入百濟 市中舞劍 觀者如堵 百濟王聞之召觀命升堂舞劍 倡郎因刺王國人殺之羅人哀之像其容爲假面作舞劍之狀至今傳之.”

87) 임란기 조선군사들의 검술보급을 위하여 항복한 왜병인 항왜병들에게 조총관련 기술과 왜검법을 전수하라는 내용의 기사가 자주 보인다. 그만큼 조선군의 검술 보급이 미약했다.(『宣祖實錄』 31卷, 宣祖 25年 10月 15日 辛丑條, “生擒倭獻俘事 卒倭殺之無益 獻俘亦無益 予意 則銃筒製造放砲等事 及賊情詳加誘問 或解劍術者 則問而傳習 何如.”

88) 『武藝圖譜通志』 御製序, “其禁苑練兵 盛自光廟朝 然止弓矢一技而已 如槍劍諸技 槩未之聞焉 宣廟既平倭寇 購得威繼光紀效新書 遣訓局郎韓嶠 遍質東來將士 究解其棍棒等六技 作爲圖譜.”

유엽전, 편전, 쌍검, 언월도, 곤방, 등패, 협도곤, 편곤, 권법, 騎射, 鞭芻(馬上鞭棍), 마상재, 마상월도 등 다양한 보병/기병무예를 시험의 과목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⁹⁾ 따라서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상당수의 무예들이 이미 그 이전인 최소 顯宗代 부터는 공식화되어 시험과목으로 활용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예도보통지』에서 본국검에 대한 異稱을 ‘俗稱 新劍’ 이라고 했기에, 신라의 검법이라기보다는 새롭게(新) 만든 검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⁹⁰⁾ 따라서 모원의가 1612년에 쓴 『무비지』에 수록된 소위 ‘조선세법’ 즉, ‘예도24세’ 에서 그 명칭을 차용하여 본국검의 자세명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무예에서 자세명에 대한 차용 방식은 광해군대 편찬된 무예서인 『武藝諸譜翻譯續集』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예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예서 자세의 비교를 통해 무예명칭 차용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9) 『承政院日記』 233冊 顯宗 14年 3月 11日 辛巳條. “觀武才初試規矩 鳥銃三柄 一巡二中 柳葉箭一巡三分 片箭一巡二分 雙劍上上 偃月刀上上 本國劍上上 捧上上 挾刀棍上上 藤牌上上 鞭芻上上 拳法上上 騎芻一次二中 鞭芻一次五中 馬上才上下 馬上偃月刀 落點.” ; 다른 사료에 몇 년정도 앞서는 기록이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임란 이후의 기록에서 본국검의 기록이 처음으로 보인다.

90) 본국검의 연원이나 그 인식형태는 허인옥, 「본국검의 기원에 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8-1, 한국체육사학회, 2003.의 논고를 참고한다. 이 논문에서도 역시 본국검의 기원을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는 조선후기에 새롭게 창작된 검법으로 보고 있다.

표 1. 『武藝諸譜』의 棍과 長刀 및 『武藝諸譜翻譯續集』의 倭劍交戰 勢(명칭) 비교

구분 자세명	棍(武藝諸譜)	長刀(武藝諸譜)	倭劍(交戰) (武藝諸譜翻譯續集)
1	偏身中攔勢	見賊出劔勢	進前殺賊勢
2	大當勢	持劔對賊勢	向前擊賊勢
3	大剪勢	向左防賊	下接勢
4	大吊勢	向右防賊	持劔對賊勢
5	適水勢	向上防賊	仙人捧盤勢
6	仙人捧盤勢	向前擊賊	齊眉殺勢
7	齊眉殺勢	初退防賊	龍拏虎攫
8	倒頭勢	進前殺賊	左防賊勢
9	下穿勢	持劔進坐	右防賊勢
10	閃腰剪勢	拭劔伺賊	適水勢
11	下接勢	閃劔退坐	向上防賊勢
12	直符送書勢	揮劔向賊	初退防賊勢
13	走馬回頭勢	再退防賊	撫劔伺賊勢
14	上剃勢	三退防賊	
15		藏劔賈勇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倭劍은 일종의 겨루기 형태의 교전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자세명을 살펴보면 進前殺賊, 仙人捧盤, 下接, 齊眉殺, 龍拏虎攫, 適水, 向上防賊, 初退防賊, 撫劔伺賊 등이 있다. 이러한 자세들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식 자세 명칭인 棍과 長刀의 ‘勢’ 명칭을 그 동작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조선에서 새롭게 만든 왜검 교전 명칭에 재조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⁹¹⁾

따라서 새롭게 만든 검법인 본국검에도 기존에 만들어진 예도의 자세명칭에서 그 움직임의 형태상 특성을 감안하여 그 명칭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

91) 최형국, 「조선후기 倭劍交戰 변화연구」 『역사민속학』 25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다. 본국검보에서 예도의 명칭과 일치되는 자세는 雁字勢, 直符送書勢, 撥州尋蛇勢, 朝天勢, 左挾獸頭勢, 展旗勢, 長蛟噴水勢⁹²⁾, 白猿出洞勢, 右鑽擊勢 등 모두 9가지가 등장한다.

그 중 동작을 연결세로 재현했을 때, 공격도 아니고 방어도 아닌 애매한 자세로 보이는 것이 朝天勢, 左挾獸頭勢, 白猿出洞勢이다. 나머지 자세의 경우는 명확하게 찌르거나(刺), 치거나(擊), 울려 베거나(掠) 하는 방식으로 공격의 형태가 설정되었지만, 朝天勢는 ‘두 손으로 칼을 이마 위로 높이 들고’, 左挾獸頭勢는 ‘오른편으로 돌아 앞으로 나아가 뒤를 향하며(설명 없음)’, 白猿出洞勢는 ‘오른손과 오른다리를 든다’ 라고 지극히 단편적인 모습만을 문자로 남겨 놓고 연관된 그림도 단 한 장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자세의 동작설명은 본국검 내부에 찾을 것이 아니라, 명칭을 차용한 예도에서 그 움직임의 찾아내는 것이 그 올바른 자세복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朝天勢는 ‘두 손으로 칼을 이마 위로 높이 들고’는 예도 掀擊勢의 ‘이 법은 능히 흔들고 돋우어 위로 殺하거나 훑어 걸어 비벼 殺할 수 있다. 왼다리와 오른손으로 조천세로 앞을 향하여 퇴보로 탄복자를 한다.’⁹³⁾에서 차용했으므로, ‘조천세’는 흔격세 상태에서 칼을 앞을 향해 걸쳐 베어 올리듯 들어 올려 칼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左挾獸頭勢는 아예 설명이 없는데 예도의 좌협세에, ‘이 법은 능히 다 찢러 찌르고 가운데로 殺할 수 있다. 오른다리와 오른손으로 수두세로 앞을 향하여 진보로 허리를 친다.’⁹⁴⁾라고 하여 좌협세와 수두세로 구분하여

92) 예도의 요락세에는 ‘長蛟分水勢’로 중간의 ‘分’의 한자가 다르게 사용되었다. 만약 본국검에서 한자를 오기했다고 판단하고, 장교분수세도 동일자세명으로 분류한다. 만약 동일세로 생각할 경우,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예도의 요락세를 참고한다면, 장교분수세의 설명인 ‘장교분수세’는 칼을 아래서 위로 막고 받으며 걸쳐치는 움직임이 된다.

93) 『武藝圖譜通志』 卷2 銳刀, “掀擊勢者 卽掀擊也 法能掀挑上殺搶步鑽殺 左脚右手朝天勢 向前退步 袒腹刺 看法”.

94) 『武藝圖譜通志』 卷2 銳刀, “左夾勢者 卽左夾刺也 法能衝刺中殺 右脚右手 獸頭勢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그 움직임은 ‘수두세는 좌협세 상태에서 칼끝을 앞으로 하여 찌르듯 내렸다가 왼편 어깨 쪽에 기대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白猿出洞勢는 ‘오른손과 오른다리를 든다’라고 하였는데, 鑽擊勢에서 ‘이 법은 능히 비비는 격으로 훑어殺할 수 있는데, 거위 모양과 오리걸음으로 달리며 내딛을 수 있다. 왼다리와 왼손으로 백원출동세로 앞을 향하여 체보로 허리를 친다.’⁹⁵⁾라고 했으므로, 그 동작을 차용했을 경우, ‘백원출동세’는 찬격세 상태에서 오른발을 가볍게 들며 칼을 왼편 몸 뒷쪽 아래로 내렸다가 돌려(칼날을 뒤집어) 훑어 배듯 걸쳐 올려 왼쪽 어깨위로 들어 올리는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본국검의 명칭을 예도에서 차용했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실제 복원자세를 구현할 경우 각 연결세에서 공격도 아니고 방어도 아닌 혹은 설명이 없이 오직 그림만 존재하는 연결 자세의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다.

IV. 맺음말

『무예도보통지』는 18세기 조선군의 단병무예를 집대성한 병서다. 임란을 거치며 조선에 새롭게 보급된 보병용 창검술과 기병용 마상무예를 글과 그림으로 군사들이 익힐 수 있도록 세심하게 편찬한 것이다. 특히 정조시대 당시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마상무예의 경우는 몽골의 무예를 흡수하여 조선화시킨 동아시아 신체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낸 무예서였다. 따라서 당대 동아시아 군사들의 신체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기술서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 언급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도(24세)의 경우는 ‘初躑’이라고 할 만큼 銳刀에서 칼을 수련함

向前進步 腰擊 看法”.

95) 『武藝圖譜通志』 卷2 銳刀, “鑽擊勢者 卽鑽擊也法 能鑽格槍殺鵝形鴨步奔衝 左脚左手 白猿出洞勢 向前擊步 腰擊 看法”.

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단순한 동작인 주로 칼을 접었다가 공격하는 움직임이나 공격하였다가 겨누는 방식으로 지극히 단순한 자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예도24세의 전체 문장구조는 해당 자세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바로 이어 이 방법으로 어느 부분 혹은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첫 자세에서 다음 자세로 움직일 때 어떤 손과 발을 사용하고 어떻게(두번째 자세) 움직여 어떤 보법으로 마지막 자세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둘째, 『武藝諸譜翻譯續集』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예서에서 새롭게 무예 자세 명칭을 만들어야 할 경우 그 동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만든 자세의 명칭을 차용했다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본국검보에서 예도의 명칭과 일치되는 자세는 雁字勢, 直符送書勢, 撥艸尋蛇勢, 朝天勢, 左挾獸頭勢, 展旗勢, 長蛟噴水勢, 白猿出洞勢, 右鑽擊勢 등 모두 9가지가 등장한다.

특히 본국검보에서 해당 자세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예도24세에서 그 동작설명을 차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중 朝天勢, 左挾獸頭勢, 白猿出洞勢의 경우는 예도의 동작설명이 있어야만 공방기법에 따라 자연스러운 연결세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무예는 문화적 속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단순히 중국의 무예를 차용했다고해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선군의 몸 속에서 변화하여 새롭게 조선화하여 탄생하는 것이 무예인 것이다.

21세기인 오늘에도 무예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또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당대의 문화사적 변용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내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변화의 시작점이 잘못되어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관점으로 당대의 무예를 살펴 오늘날 우리의 몸에 맞게 풀어 가는 것 또한 현대 무예인들의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 『凌虛關漫稿』
『大典通編』
『武藝諸譜』
『武藝諸譜翻譯續集』
『武藝圖譜通志』
『兵學通』
『才物譜』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劍法圖說』

<논문>

- 곽낙현(2014). 『무예도보통지』 연구동향 분석. 東洋古典研究, 55, 193-222.
곽낙현(2016). 남북한 『무예도보통지』의 성과와 과제. 정신문화연구, 39(1), 7-33.
김준혁(2005). 正祖의 『武藝圖譜通志』 편찬 의도와 壯勇營 강화. 중앙사론, 21.
김성인(2000). 무예도보통지의 예도조(1-2). 마르스, 11-12월호.
김성인(2001). 무예도보통지의 예도조(3-4). 마르스, 5-6월호.
노영구(2000). 正祖代 兵書 刊行의 背景과 推移. 藏書閣 3, 59-85.
이중립(1999). 朝鮮勢法考. 한국체육학회지, 38(1). 9-21.
전영식(2004). 조선 정조시대의 武藝圖譜通志에 관한 연구-銳刀를 중심으로. 기간
행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鄭海恩(2004).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短兵器와 <武藝諸譜>의 간행. 軍史, 51,
151-183.
震檀學會(2001). 『武藝圖譜通志』의 종합적 검토, 제28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
최형국(2007). 朝鮮後期 倭劍交戰 변화. 역사민속학, 25, 93-117.

- 최형국(2008). 朝鮮後期 軍事信號體系 研究. 學藝志, 15, 17-36.
- 최형국(2011). 朝鮮後期 騎兵의 馬上武藝 研究.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최형국(2011). 조선후기 陣法 鴛鴦陣의 군사무예 특성. 軍史, 78, 71-107.
- 최형국(2012). 正祖의 文武兼全論과 兵書 간행-認識과 意味를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39, 101-132.
- 허인욱(2003). 본국검의 기원에 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8(1), 한국체육사학회. 59-70.
- 허인욱(2010). 예도의 유래에 대한 연구. 건지인문학 4, 317-336.

ABSTRACT

The posture analysis of 『Muyedobotongji(武藝圖譜通志)』 「Yedo(銳刀)」 and the correlation of 「Bonguggeom(本國劍)」

Choi, Hyeong-Guk(Director, Insitute of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In this paper, I study the sentence structure of the martial arts book 『Muyedobotongji(武藝圖譜通志)』 「Yedo(銳刀)」 in the Joseon era and the actual posture of it. In addition, it is a study of the correlation with 「Bonguggeom(本國劍)」. In the case of 「Yedo」, it is the simplest movement that is the most basic in training a knife called ‘Chosp(Basic training)’. The mainly way of movement, it’s basic attacked and defended, It was composed of a very simple posture. More specifically, If analysis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 「Yedo」. First sentence describes its posture. Second, it explains the possibilities of which parts or attacks can be carried out in this way. Thirdly, it is an explanation of the actual movement. It was able to find out what step method was used to explain the final posture when moving from the first posture to the next posture. In addition, when creating a new martial arts posture name in some martial arts books including 「Bonguggeom」, confirmed that the name of the newly created posture was borrowed based on the similarity of the movements. Based on this, if there is in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corresponding posture of the posture that matches the name of 「Yedo」 in 「Bonguggeom」, or if it does not exist, Borrowed the explanation of that action with 「Yedo」. For example, in the case of Jocheonse(朝天勢), Jwahyeobsuduse(左挾獸頭勢) and Baegwonchuldongse(白猿出洞勢), it was found that a natural connection posture is possible when added based on the description of the operation.

Key words: 『Muyedobotongji(武藝圖譜通志)』, 「Yedo(銳刀)」, 「Bonguggeom (本國劍), Posture correlation, Sentence structure

논문투고일 : 2020.09.03.
심사일 : 2020.10.10.
심사완료일 : 2020.10.31.